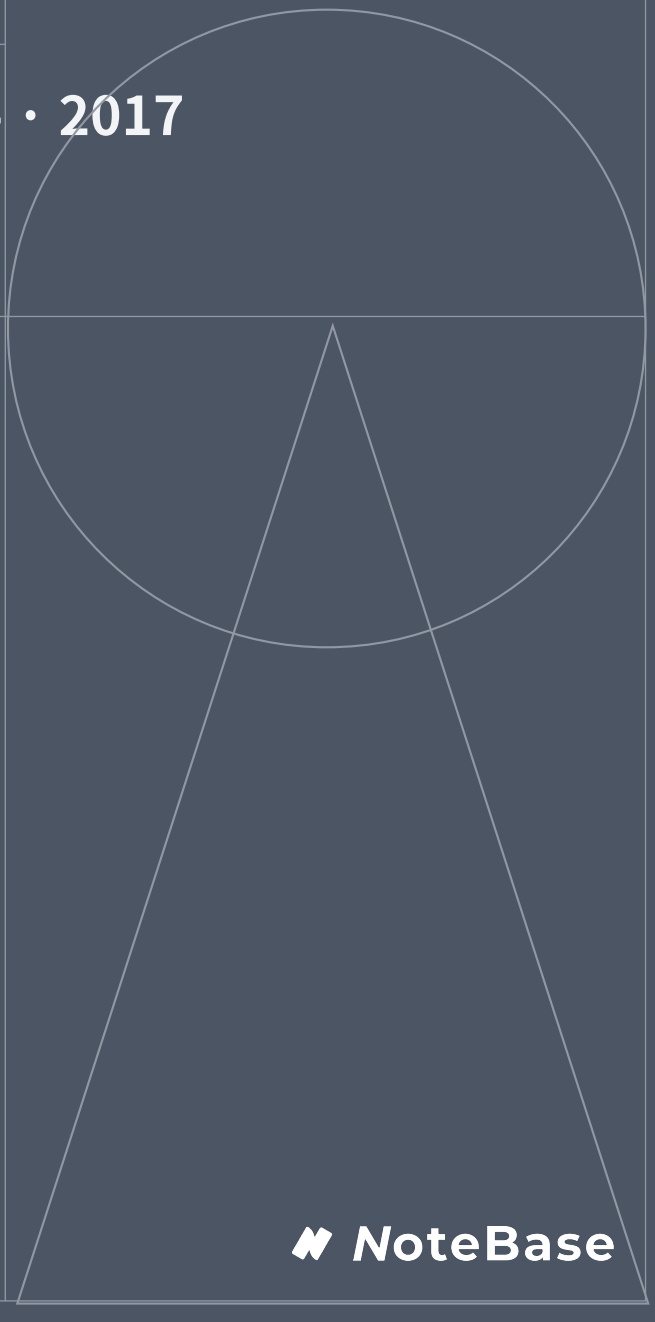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전문직/노무사 · 경제학원론 · 2017



NoteBase

기출OX 해설집

전문직/노무사 · 경제학원론 · 2017

전문직/노무사 · 경제학원론 · 2017

문 101. GDP를 $Y = C + I + G + X - M$으로 표시할 때, GDP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X - M$은 순수출(무역수지로 측정)이다.)

① 무역수지가 적자일 경우, GDP는 국내 경제주체들의 총지출보다 작다.

② GDP가 감소해도 무역수지는 흑자가 될 수 있다.

③ M(수입)은 C, I, G에 포함되어 있는 수입액을 모두 다 더한 것이다.

④ 올해 생산물 중 판매되지 않고 남은 재고는 올해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무역수지가 흑자이면 국내 저축이 국내 투자보다 더 크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지출 측면의 GDP 항등식 $Y = C + I + G + X - M$에서 순수출, 수입, 재고투자, 저축·투자의 관계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순수출은 수출에서 수입을 뺀 $X - M$이며, 무역수지 흑자는 순수출이 양수인 상태이다.
수입품 지출은 먼저 소비·투자·정부지출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국내 생산만 측정하기 위해 GDP 계산에서 수입 M을 차감한다.
생산되었지만 팔리지 않은 재고의 증가는 재고투자로 처리되어 생산된 해의 GDP에 포함된다.
개방경제의 국민소득 항등식에서는 국민저축 S와 국내투자 I 사이에 $S - I = X - M$이 성립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무역수지 적자는 $X - M < 0$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Y = C + I + G + (X - M)$는 국내 경제주체의 총지출인 $C + I + G$보다 작다.

② O
GDP의 증감과 무역수지의 흑자·적자는 같은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관계가 아니다. GDP가 감소하더라도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크게 줄면 $X - M > 0$인 무역수지 흑자가 될 수 있다.

③ O
소비재 수입은 C, 자본재 수입은 I, 정부의 수입품 구입은 G에 먼저 포함될 수 있다. 이들에 포함된 전체 수입액을 M으로 빼서 외국에서 생산된 부분을 GDP에서 제외한다.

④ X
틀린 표현은 "판매되지 않고 남은 재고는 올해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이다. 올해 생산된 미판매 재고는 기업이 스스로 구입한 재고투자로 보아 올해의 I와 GDP에 포함된다. 올바르게는 "올해 생산물 중 판매되지 않고 남은 재고도 올해의 재고투자로서 GDP에 포함된다"이다.

⑤ O
$S - I = X - M$이므로 무역수지가 흑자이면 $X - M > 0$이고, 이에 따라 국민저축 S가 국내투자 I보다 크다.

오답 포인트

④는 GDP를 판매액으로만 생각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GDP는 일정 기간에 새로 생산된 최종재의 가치를 측정하므로,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생산된 재고를 재고투자로 포함한다. 또한 ③의 수입 차감은 수입이 지출에서 무시된다는 뜻이 아니라, C, I, G에 들어간 외국 생산분을 제거하는 조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Y = C + I + G + NX$, $NX = X - M$, $S - I = NX$를 연결한다. 이어서 미판매 재고는 재고투자, 수입 차감은 외국 생산분 제거라는 기준으로 각 선지를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수입은 빼고, 재고는 투자로 더하며, 무역흑자는 $S > I$이다.

NoteBase

문 102. A국에서 중앙은행이 최초로 100단위의 본원통화를 공급하였다. 민간현금 보유비율이 0.1이고, 은행의 지급준비율이 0.2일 때, A국의 통화량은? (단,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 단위까지 구한다.)

① 333

② 357

③ 500

④ 833

⑤ 1,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본원통화가 민간 보유 현금과 은행 지급준비금으로 나뉜다는 점을 이용하여 통화승수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본원통화: 100
민간현금 보유비율: $c = C/M = 0.1$
은행 지급준비율: $r = R/D = 0.2$
구해야 할 값: 통화량 $M = C + D$
주의할 조건: 지급준비율은 통화량 전체가 아니라 예금 D에 적용하며, 최종 계산값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사용할 공식

현금이 통화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c, 지급준비율을 r라고 하면 통화승수는 다음과 같다.
$\frac{M}{H} = \frac{1}{c + r(1-c)}$
민간현금 보유액은 $C = cM$, 예금은 $D = (1-c)M$, 지급준비금은 $R = rD = r(1-c)M$이다. 따라서 본원통화 $H = C + R$에 이 공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민간 보유 현금은 $C = 0.1M$이고, 예금은 $D = M - C = 0.9M$이다.
2. 지급준비금은 $R = 0.2D = 0.2 \times 0.9M = 0.18M$이다.
3. 본원통화는 $H = C + R = 0.1M + 0.18M = 0.28M$이다.
4. $100 = 0.28M$이므로 $M = 100/0.28 \approx 357.142$이다.
5.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통화량은 357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333을 대입하면 필요한 본원통화는 $0.28 \times 333 = 93.24$로 100이 되지 않는다. 333은 현금 보유비율 0.1과 지급준비율 0.2를 단순히 더해 분모를 0.3으로 잡을 때 나오는 값이다. 지급준비율은 예금 0.9M에 적용해야 하므로 올바른 값은 357이다.
② O — $M = 100/0.28 \approx 357.142$를 반올림하면 357이므로 계산 결과와 일치한다.
③ X — 500을 대입하면 필요한 본원통화는 $0.28 \times 500 = 140$이므로 조건과 맞지 않는다. 지급준비율 0.2만으로 100을 나누어 민간의 현금 보유를 누락한 값이며, 올바른 값은 357이다.
④ X — 833을 대입하면 필요한 본원통화는 $0.28 \times 833 = 233.24$로 100을 초과한다. 주어진 비율을 모두 반영한 올바른 통화량은 357이다.
⑤ X — 1,000을 대입하면 필요한 본원통화는 $0.28 \times 1{,}000 = 280$으로 100을 초과한다. 본원통화의 10배가 통화량이라고 볼 근거가 없으며, 올바른 값은 357이다.

오답 포인트

가장 큰 함정은 0.1과 0.2를 바로 더하여 통화승수를 1/0.3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민간현금 보유비율은 통화량을 기준으로 하지만 지급준비율은 예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지급준비금은 $0.2M$가 아니라 $0.2 \times 0.9M = 0.18M$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 비율의 분모를 확인한다. $C/M = c$이면 $C = cM$, $D = (1-c)M$, $R = rD$로 바꾼 뒤 $H = C + R$에 대입하고 마지막에만 반올림한다.

암기 포인트

현금비율이 C/M 기준이면 통화승수는 $1/[c + r(1-c)]$이다.

NoteBase

문 103. 다음 중 실업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① 두 달 후에 있을 공무원 시험을 치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 A씨

② 서류 전형에서 거듭 낙방한 후, 산속에 들어가 버섯 재배업을 시작한 B씨

③ 주중 내내 부모님의 식당일을 도와 생활비를 얻어 쓰는 C씨

④ 대학 졸업 후 부모님에 얹혀살면서 취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D씨

⑤ 다니던 직장에 만족하지 못해 사직한 후, 외국계 회사에 면접을 보러 다니는 E씨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실업자를 취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와 구분하는 기준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실업자는 조사대상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최근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으며, 일이 주어지면 취업할 수 있는 사람이다.
취업자는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일시휴직자 등을 포함한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으로,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취업준비자나 취업 의사가 없는 사람 등이 해당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A씨는 공무원 시험을 공부하고 있을 뿐 구인처 접촉, 원서 제출, 면접과 같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틀린 표현은 '실업자로 분류'되는 경우라는 점이며, 올바르게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로 분류된다.

② X
B씨는 버섯 재배업을 시작하여 자신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자영업자인 취업자이다. 틀린 표현은 '실업자로 분류'되는 경우라는 점이며, 올바르게는 비임금근로자인 취업자로 분류된다.

③ X
C씨는 주중 내내 부모님의 식당 일을 하고 생활비를 얻으므로 일을 하고 있는 취업자이다. 보수를 받는 가족종사자는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취업자이고, 보수가 없더라도 주중 내내 일하여 조사대상주간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라면 취업자이다. 틀린 표현은 '실업자로 분류'되는 경우라는 점이며, 올바르게는 취업자로 분류된다.

④ X
D씨는 취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실업자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실업자로 분류'되는 경우라는 점이며, 올바르게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⑤ O
E씨는 직장을 그만두어 현재 일이 없고, 외국계 회사의 면접을 보러 다니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 취업 의사와 취업 가능성도 드러나므로 실업자의 요건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직업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실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①의 시험공부는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다르고, ④는 취업 의사 자체가 없다. 반대로 ②와 ③은 임금근로자가 아니거나 가족의 일을 돕더라도 실제로 일하고 있으므로 취업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실제로 일했는지를 확인하여 취업자를 가려낸다. 일이 없다면 최근 4주간 원서 제출이나 면접 등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했는지와 취업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세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자이고, 그렇지 않으면 비경제활동인구이다.

암기 포인트

실업자 = 무직 + 적극적 구직활동 + 취업 가능, 분류 우선순위는 취업자 → 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이다.

NoteBase

문 104. 인천공항에 막 도착한 A씨는 미국에서 사먹던 빅맥 1개의 가격인 5달러를 원화로 환전한 5,500원을 들고 햄버거 가게로 갔다. 여기서 A씨는 미국과 똑같은 빅맥 1개를 구입하고도 1,100원이 남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한국의 빅맥 가격을 달러로 환산하면 4달러이다.
ㄴ. 구매력평가설에 의하면 원화의 대미 달러 환율은 1,100원이다.
ㄷ. 빅맥 가격을 기준으로 한 대미 실질환율은 880원이다.
ㄹ. 빅맥 가격을 기준으로 볼 때, 현재의 명목환율은 원화의 구매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시장환율, 구매력평가환율, 실질환율을 구분하고 시장환율과 구매력평가환율의 차이로 원화의 저평가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미국의 빅맥 가격은 5달러이다.
5달러를 환전한 금액이 5500원이므로 현재 명목환율은 달러당 1100원이다.
한국에서 빅맥을 사고 1100원이 남았으므로 한국의 빅맥 가격은 5500원-1100원=4400원이다.

사용할 공식

한국의 빅맥 가격을 달러로 환산한 값은 P_K/e이다.
구매력평가환율은 $e_{PPP} = P_K/P_{US}$이다.
원/달러 명목환율을 사용하는 실질환율은 $q = eP_{US}/P_K$이다.
여기서 e는 원/달러 명목환율, P_K는 한국 가격, P_{US}는 미국 가격이다. 동일한 재화의 국내외 가격을 하나의 통화로 비교해야 하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현재 명목환율은 $e = 5500/5 = 1100$이므로 달러당 1100원이다.
2. 한국 빅맥 가격은 4400원이므로 달러 환산 가격은 $4400/1100 = 4$달러이다.
3. 구매력평가환율은 $e_{PPP} = 4400/5 = 880$이므로 달러당 880원이다.
4. 실질환율은 $q = (1100 \times 5)/4400 = 1.25$이다. 역수 방식으로 표시하면 0.8이며, 어느 방식이든 단위가 원인 880원은 실질환율이 아니라 구매력평가환율이다.
5. 시장의 명목환율 1100원이 구매력평가환율 880원보다 크므로 달러 한 단위를 사는 데 필요한 원화가 구매력평가 기준보다 많다. 따라서 원화는 저평가되어 있고 원화의 구매력은 과소평가되어 있다.

그러므로 ㄱ과 ㄹ이 옳다.

선지 판단

① X — ㄱ은 맞지만 ㄴ은 틀리다. 구매력평가환율은 달러당 1100원이 아니라 $4400/5 = 880$원이다. 틀린 조합 'ㄱ, ㄴ'은 'ㄱ, ㄹ'로 고쳐야 한다.

② X — ㄱ은 맞지만 ㄷ은 틀리다. 880원은 실질환율이 아니라 구매력평가환율이며, 실질환율은 $(1100 \times 5)/4400 = 1.25$이다. 틀린 조합 'ㄱ, ㄷ'은 'ㄱ, ㄹ'로 고쳐야 한다.

③ O — 한국 빅맥의 달러 환산 가격은 4달러이므로 ㄱ이 맞고, 명목환율 1100원이 구매력평가환율 880원보다 커 원화의 구매력이 과소평가되므로 ㄹ도 맞다.

④ X — ㄴ과 ㄷ이 모두 틀리다. 880원은 구매력평가환율이고, 실질환율은 1.25이다. 틀린 조합 'ㄴ, ㄷ'은 'ㄱ, ㄹ'로 고쳐야 한다.

⑤ X — ㄹ은 맞지만 ㄴ은 틀리다. 구매력평가환율은 달러당 880원이다. 틀린 조합 'ㄴ, ㄹ'은 'ㄱ, ㄹ'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ㄴ과 ㄷ은 1100원과 880원의 의미를 바꾸어 놓은 함정이다. 1100원은 실제 환전에서 관찰한 명목환율이고, 880원은 동일한 빅맥의 한미 가격을 같게 만드는 구매력평가환율이다. 또한 명목환율이 구매력평가환율보다 높을 때 원화가 고평가되었다고 거꾸로 판단하기 쉽지만, 원/달러 환율이 더 높다는 것은 달러에 비해 원화 가치가 더 낮다는 뜻이므로 원화 저평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국내 가격과 시장의 명목환율을 구한 뒤, $e_{PPP} = P_K/P_{US}$로 구매력평가환율을 계산한다. 그다음 시장환율이 구매력평가환율보다 크면 국내통화 저평가, 작으면 국내통화 고평가로 판단한다. 실질환율은 두 나라의 재화 가격 비율이므로 원 단위의 환율과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원/달러 시장환율이 구매력평가환율보다 크면 원화 저평가이다. 이 문제에서는 '명목 1100원, 구매력평가 880원, 실질 1.25'로 구분된다.

NoteBase

문 105. 다음 중 총수요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 인하
ㄴ. 종합소득세율 인상
ㄷ.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ㄹ. 물가수준 하락으로 가계의 실질자산가치 증대
ㅁ. 해외경기 호조로 순수출 증대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ㄷ, ㅁ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총수요의 구성요소를 변화시켜 총수요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과, 물가수준 변화로 총수요곡선 위에서 이동하는 요인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총수요는 일정한 물가수준에서 가계·기업·정부·해외 부문이 구매하려는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총량이며, $AD = C + I + G + NX$로 나타낸다.
소비 C, 투자 I, 정부지출 G, 순수출 NX을 늘리는 물가 외 요인은 총수요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반면 물가수준 자체의 변화는 총수요량을 바꾸어 기존 총수요곡선 위의 이동을 일으킨다.
ㄱ은 대출이자 부담을 낮춰 소비와 주택투자를 늘리므로 우측 이동 요인이다. ㄴ은 가처분소득과 소비를 줄이므로 좌측 이동 요인이다. ㄷ은 투자 비용을 낮춰 투자를 늘리므로 우측 이동 요인이다. ㄹ은 물가수준 하락에 따른 실질자산효과이므로 곡선상의 이동이다. ㅁ은 수출과 순수출을 늘리므로 우측 이동 요인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은 맞지만 ㄴ과 ㄹ이 틀렸다. 종합소득세율 인상은 소비를 감소시켜 총수요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고, 물가수준 하락에 따른 실질자산가치 증대는 총수요곡선 자체의 이동이 아니라 곡선상의 이동을 일으킨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ㄷ, ㅁ이다.

② O
ㄱ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인하는 소비와 주택투자를 늘리고, ㄷ의 투자세액공제 확대는 기업투자를 늘리며, ㅁ의 해외경기 호조는 수출과 순수출을 늘린다. 세 요인은 모두 총수요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③ X
ㄹ이 틀렸고 ㄷ이 빠졌다. 물가수준 하락으로 실질자산가치가 증가하면 기존 총수요곡선 위에서 총수요량이 증가한다. 우측 이동 요인인 기업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포함하여 ㄱ, ㄷ, ㅁ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ㄷ은 맞지만 ㄴ과 ㄹ이 틀렸고 ㄱ과 ㅁ이 빠졌다. 종합소득세율 인상은 총수요를 줄이며, 물가수준 하락은 곡선상의 이동 요인이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ㄷ, ㅁ이다.

⑤ X
ㄷ과 ㅁ은 맞지만 ㄴ이 틀렸고 ㄱ이 빠졌다. 종합소득세율 인상은 소비를 줄여 총수요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반면,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인하는 소비와 주택투자를 늘리는 우측 이동 요인이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ㄷ, ㅁ이다.

오답 포인트

ㄹ의 '실질자산가치 증대'만 보고 총수요곡선의 우측 이동으로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그 원인이 물가수준 하락이므로 이는 총수요량의 증가, 즉 기존 총수요곡선 위의 이동이다. 또한 세율 인상은 정부의 세입 증가가 아니라 가계의 가처분소득과 소비 감소 경로로 판단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원인이 물가수준 자체의 변화인지 확인한다. 물가수준 변화이면 곡선상의 이동이고, 이자율·조세·투자유인·해외경기처럼 소비·투자·순수출을 바꾸는 물가 외 요인이면 총수요곡선의 이동이다. 그다음 각 요인이 C, I, G, NX 중 무엇을 어느 방향으로 바꾸는지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물가수준 변화는 총수요곡선 위의 이동, $C \cdot I \cdot G \cdot NX$의 외생적 변화는 총수요곡선 자체의 이동이다.

NoteBase

문 106. 고전학파의 이자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피셔효과로 인해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된다.

② IS-LM 곡선에 의해 균형이자율이 결정된다.

③ 유동성선호가 이자율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④ 화폐부문과 실물부문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한다.

⑤ 화폐시장에서 화폐에 대한 수요와 화폐의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고전학파의 이자율 이론과 케인즈학파의 유동성선호설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고전학파: 이자율은 저축과 투자를 일치시키는 실물적 변수이며, 실질이자율은 실물부문에서 결정된다. 예상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명목이자율이 같은 폭으로 상승한다는 피셔효과가 나타나므로 실질이자율은 변하지 않는다.
케인즈학파: 이자율은 화폐시장에서 유동성선호에 따른 화폐수요와 화폐공급에 의해 결정되며, 투자 변화를 통해 실물부문에 영향을 준다.

선지별 해설

① O — 고전학파에서는 예상 인플레이션이 상승한 만큼 명목이자율이 상승하여 실질이자율이 변하지 않는 피셔효과가 나타난다. 이는 화폐량의 변화가 실질변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화폐의 중립성과 부합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IS-LM 곡선에 의해'이다. IS-LM 모형은 재화시장과 화폐시장의 동시균형으로 이자율을 설명하는 케인즈학파 계열의 모형이다. 고전학파에서는 저축과 투자가 일치하는 대부자금시장에서 실질이자율이 결정된다.
③ X — 틀린 표현은 '유동성선호가 이자율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다. 유동성선호는 화폐수요를 중시하는 케인즈의 이자율 이론이다. 고전학파에서는 저축과 투자의 상호작용이 이자율 결정의 핵심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화폐부문과 실물부문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한다'이다. 이는 화폐시장에서 결정된 이자율이 투자를 변화시켜 실물부문에 영향을 준다는 케인즈학파의 설명이다. 고전학파에서는 이자율을 실물부문에서 결정되는 변수로 본다.
⑤ X — 틀린 표현은 '화폐시장에서 화폐에 대한 수요와 화폐의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이다. 이는 케인즈의 유동성선호설이다. 고전학파의 이자율은 대부자금시장에서 저축의 공급과 투자의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NoteBase

출제자가 노린 함정

②~⑤는 현대 거시경제학에서 익숙한 이자율 설명이지만 모두 케인즈학파의 화폐적 이자율 이론에 가깝다. 특히 ⑤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표현만 보고 고전학파로 판단하면 안 되며, 무엇의 수요와 공급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저축·투자, 대부자금, 실질이자율, 피셔효과'가 나오면 고전학파로 판단하고, '유동성선호, 화폐수요·화폐공급, IS-LM'이 나오면 케인즈학파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고전학파는 저축과 투자, 케인즈학파는 화폐수요와 화폐공급이다.

NoteBase

문 107. 케인즈 소비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계소비성향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② 소비는 현재 소득의 함수이다.

③ 소득이 없어도 기본적인 소비는 있다.

④ 소득이 증가할수록 평균소비성향은 증가한다.

⑤ 소득과 소비의 장기적 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케인즈의 단기 소비함수에서 한계소비성향과 평균소비성향이 소득 증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케인즈 소비함수는 현재의 가처분소득이 소비를 결정한다고 보는 절대소득가설의 소비함수이다.
기본형은 $C = a + bY_d$이다. a는 소득이 없어도 이루어지는 기초소비인 자율소비이고, b는 한계소비성향으로 $0 < b < 1$이다.
평균소비성향은 $APC = C/Y_d = a/Y_d + b$이므로 소득 Y_d가 증가할수록 a/Y_d가 작아져 감소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한계소비성향은 소득이 1단위 증가할 때 늘어나는 소비의 비율이다. 케인즈 소비함수에서는 추가 소득의 일부는 소비하고 나머지는 저축하므로 $0 < MPC < 1$이다.
② O — 케인즈의 절대소득가설에서는 소비를 현재 가처분소득의 함수로 본다. 즉 현재 소득이 소비의 핵심 결정요인이다.
③ O — 자율소비 a가 양수이므로 현재 소득이 0이어도 생존 등에 필요한 기초소비가 존재한다. 이 소비는 과거 저축의 인출이나 차입 등으로 충당될 수 있다.
④ X — 틀린 표현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평균소비성향은 증가한다'이다. 올바르게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평균소비성향은 감소한다. $APC = a/Y_d + b$에서 소득이 커질수록 자율소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a/Y_d이 작아지기 때문이다.
⑤ O — 케인즈의 단기 소비함수는 소득 증가에 따라 평균소비성향이 하락한다고 예측한다. 따라서 소득과 소비가 장기적으로 비례하여 평균소비성향이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관계를 설명하기 어렵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에서 한계소비성향과 평균소비성향을 혼동하기 쉽다. 한계소비성향 b는 일정하다고 가정하지만, 평균소비성향은 $a/Y_d + b$이므로 소득이 늘수록 감소한다. 또한 문제의 부정형 표현인 '옳지 않은 것'을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케인즈 소비함수 문제에서는 먼저 $C = a + bY_d$를 세운다. 한계소비성향은 기울기 b, 평균소비성향은 $a/Y_d + b$로 구분하면 소득 증가에 따른 방향을 바로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케인즈 단기 소비함수는 '자율소비는 양수, 한계소비성향은 0과 1 사이, 소득 증가 시 평균소비성향은 하락'으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108. 공공재 수요자 3명이 있는 시장에서 구성원 A, B, C의 공공재에 대한 수요 함수는 각각 아래와 같다. 공공재의 한계비용이 30으로 일정할 때, 공공재의 최적공급량에서 각 구성원이 지불해야 하는 가격은? (단, P는 가격, Q는 수량이다.)

A: $P_a = 10 - Q_a$
B: $P_b = 20 - Q_b$
C: $P_c = 20 - 2Q_c$

① $P_a = 5, \quad P_b = 15, \quad P_c = 10$
② $P_a = 5, \quad P_b = 10, \quad P_c = 10$
③ $P_a = 10, \quad P_b = 10, \quad P_c = 15$
④ $P_a = 10, \quad P_b = 15, \quad P_c = 5$
⑤ $P_a = 15, \quad P_b = 15, \quad P_c = 5$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량은 모든 구성원이 같은 수량을 소비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개인별 한계지불의사를 수직으로 합한 뒤, 그 합을 한계비용과 일치시켜 구한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P_a = 10 - Q_a$, $P_b = 20 - Q_b$, $P_c = 20 - 2Q_c$, 한계비용은 30이다.
구해야 할 값: 최적공급량에서 A, B, C가 각각 부담하는 린달가격이다.
주의할 조건: 공공재는 세 구성원이 동일한 공급량을 함께 소비하므로 $Q_a = Q_b = Q_c = Q$이다.

사용할 공식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조건은 다음과 같다.
$P_a(Q) + P_b(Q) + P_c(Q) = MC$
이는 공공재 한 단위를 추가할 때 구성원 전체가 얻는 한계편익의 합이 그 한 단위의 한계비용과 같아야 하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개인별 수요가격을 수직으로 합하면 다음과 같다.
$(10 - Q) + (20 - Q) + (20 - 2Q) = 50 - 4Q$
2. 한계편익의 합을 한계비용 30과 일치시키면 다음과 같다.
$50 - 4Q = 30$
$Q = 5$
3. $Q = 5$를 각 수요함수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P_a = 10 - 5 = 5$
$P_b = 20 - 5 = 15$
$P_c = 20 - 2(5) = 10$
따라서 각 구성원의 가격 합도 $5 + 15 + 10 = 30$으로 한계비용과 일치한다.

선지 판단

① O: $Q = 5$에서 $P_a = 5$, $P_b = 15$, $P_c = 10$이므로 계산 결과와 모두 일치한다.
② X: B의 가격을 10으로 제시한 부분이 틀렸다. $P_b = 20 - 5 = 15$이므로 올바르게는 $P_a = 5$, $P_b = 15$, $P_c = 10$이다. 제시된 가격의 합도 25로 한계비용 30에 미치지 못한다.
③ X: A, B, C의 가격을 각각 10, 10, 15로 제시한 부분이 모두 틀렸다. 올바르게는 각각 5, 15, 10이다. 이 선지는 공공재의 공통 수량 $Q = 5$를 각 개인의 수요함수에 동일하게 대입하지 않은 값이다.
④ X: A의 가격 10과 C의 가격 5가 틀렸다. 올바르게는 A가 5, C가 10이며 B는 15이다. 가격의 합이 우연히 30이더라도 각 가격이 $Q = 5$에서의 개인별 한계지불의사와 일치해야 한다.
⑤ X: A의 가격 15와 C의 가격 5가 틀렸다. 올바르게는 A가 5, C가 10이며 B는 15이다. 특히 A의 최대 수요가격은 $Q = 0$에서도 10이므로 A의 가격 15는 수요함수와 양립하지 않는다.

오답 포인트

공공재 수요를 사적재처럼 수평으로 합하거나, 세 사람이 서로 다른 수량을 소비한다고 계산하면 안 된다. 또한 ④처럼 개인별 가격의 합만 한계비용 30과 같다고 해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각 가격이 공통 최적수량 $Q = 5$에서 해당 개인의 수요가격이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공재의 최적공급 문제는 개인별 역수요를 수직으로 합하고, 합계 한계편익을 한계비용과 같게 하여 공통 수량을 구한 뒤, 그 수량을 각 역수요함수에 다시 대입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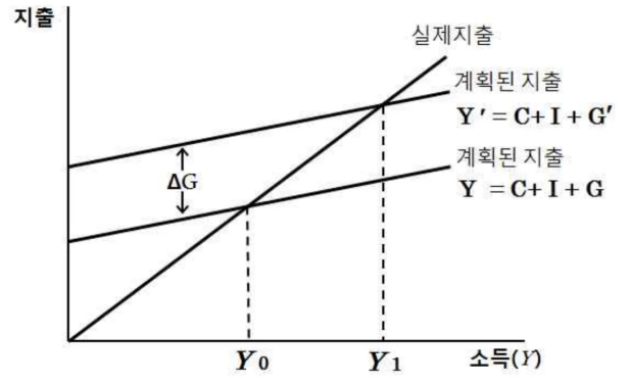
암기 포인트

공공재는 수량은 공동으로 같고, 가격은 개인별로 나뉜다. 따라서 수요가격은 수직합하며, 린달가격의 합은 한계비용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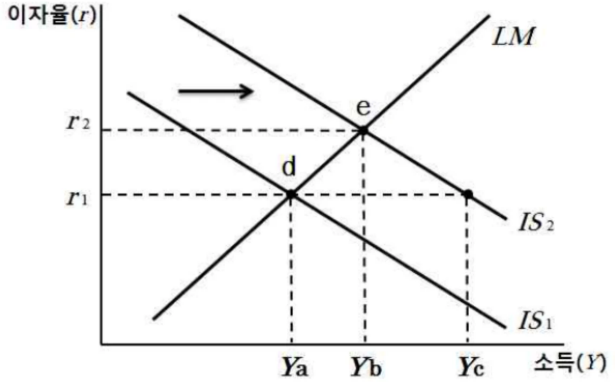
NoteBase

문 109. 아래 두 그래프는 케인즈모형에서 정부지출의 증가(ΔG)로 인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그림에서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이다.)

(A)



(B)



ㄱ. (A)에서 $Y_0 \rightarrow Y_1$의 크기는 한계소비성향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ㄴ. (A)의 $Y_0 \rightarrow Y_1$의 크기는 (B)의 $Y_a \rightarrow Y_b$의 크기와 같다.

ㄷ. (B)의 새로운 균형점 e는 구축효과를 반영하고 있다.

ㄹ. (A)에서 정부지출의 증가는 재고의 예기치 않은 증가를 가져온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정부지출 증가가 케인즈 교차모형에서는 승수효과를 일으키고, IS-LM 모형에서는 이자율 상승에 따른 구축효과 때문에 소득 증가폭이 줄어드는 과정을 두 그래프에서 연결해 판단하는 문제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은 옳지만 ㄴ은 옳지 않다. (A)의 소득 증가폭은 정부지출승수 $1/(1-MPC)$에 따라 달라지므로 ㄱ은 옳다. 반면 (A)의 $Y_0 \to Y_1$은 이자율 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증가폭이고, (B)의 실제 균형소득 증가는 $Y_a \to Y_b$이므로 두 크기는 같지 않다. 틀린 조합 'ㄱ, ㄴ' → 올바르게는 'ㄱ, ㄷ'이다.

② O
ㄱ과 ㄷ이 모두 옳다. ㄱ은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정부지출승수가 커져 (A)의 $Y_0 \to Y_1$이 커진다는 뜻이다. ㄷ은 (B)의 새 균형점 e에서 이자율이 r_1에서 r_2로 상승하여 민간투자가 일부 감소하고, 그 결과 소득이 Y_c가 아니라 Y_b까지만 증가하는 구축효과가 반영된다는 뜻이다.

③ X
ㄴ은 옳지 않고 ㄷ은 옳다. (B)에서 구축효과가 없다면 기존 이자율 r_1에서 소득은 Y_c까지 증가하지만, 이자율 상승과 구축효과 때문에 새 균형소득은 Y_b가 된다. 따라서 (A)의 $Y_0 \to Y_1$에 대응하는 것은 (B)의 $Y_a \to Y_c$이고, $Y_a \to Y_b$와 같지 않다. 틀린 조합 'ㄴ, ㄷ' → 올바르게는 'ㄱ, ㄷ'이다.

④ X
ㄴ과 ㄹ이 모두 옳지 않다. ㄴ의 두 소득 증가폭은 구축효과 때문에 같지 않다. 또한 정부지출 증가 직후에는 계획된 총지출이 실제 생산보다 커져 기업의 재고가 예상보다 감소하므로 ㄹ의 '재고의 예기치 않은 증가'가 틀렸다. 틀린 표현 → '정부지출의 증가는 재고의 예기치 않은 감소를 가져온다'가 옳고, 올바른 조합은 'ㄱ, ㄷ'이다.

⑤ X
ㄷ은 옳지만 ㄹ은 옳지 않다. 새 균형점 e는 이자율 상승에 따른 투자 감소와 구축효과를 반영한다. 그러나 (A)에서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초기 소득 수준에서 계획된 지출이 실제 지출보다 커져 재고가 예기치 않게 감소한다. 틀린 조합 'ㄷ, ㄹ' → 올바르게는 'ㄱ, ㄷ'이다.

오답 포인트

핵심 함정은 (A)의 승수효과 전체와 (B)의 구축효과 반영 후 소득 증가를 같은 크기로 보는 데 있다. (B)에서 $Y_a \to Y_c$는 이자율이 오르지 않는다고 본 증가폭이고, 실제 이동은 $Y_a \to Y_b$이다. 또한 계획된 지출이 실제 생산을 초과하면 재고는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기치 않게 감소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케인즈 교차모형에서 정부지출승수로 계산되는 전체 소득 증가를 확인한다. 다음으로 IS-LM 모형에서 이자율 상승이 투자를 줄이는지 확인한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구축효과가 발생하여 실제 소득 증가폭은 승수효과만 고려한 증가폭보다 작아진다. 계획된 지출이 실제 생산보다 크면 재고는 감소하고 생산은 증가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정부지출 증가 → IS 우측 이동 → 이자율 상승 → 투자 감소 → 구축효과, 그리고 계획지출이 생산보다 크면 재고는 감소한다.

NoteBase

문 110. 제품 A만 생산하는 독점기업의 생산비는 생산량에 관계없이 1단위당 60원이고, 제품 A에 대한 시장수요곡선은 $P = 100 - 2Q$이다. 이 독점기업의 이윤 극대화 가격(P원)과 생산량(Q개)은?

① 40원, 30개

② 50원, 25개

③ 60원, 20개

④ 70원, 15개

⑤ 80원, 10개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인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의 일치, 즉 $MR = MC$를 이용해 생산량과 가격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시장수요곡선은 $P = 100 - 2Q$이다.
생산량에 관계없이 1단위당 생산비가 60원이므로 총비용은 $TC = 60Q$, 한계비용은 $MC = 60$이다.
독점기업은 먼저 $MR = MC$로 생산량을 정한 뒤, 그 생산량을 수요곡선에 대입해 가격을 정한다.

사용할 공식

총수입과 한계수입은 다음과 같다.
$TR = P \times Q = (100 - 2Q)Q = 100Q - 2Q^2$
$MR = \frac{dTR}{dQ} = 100 - 4Q$
이윤을 극대화하는 내부해에서는 마지막 1개를 더 생산할 때 얻는 수입과 드는 비용이 같아야 하므로 $MR = MC$를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MR = MC$를 적용하면 $100 - 4Q = 60$이다.
2. 이를 풀면 $4Q = 40$이므로 $Q = 10$이다.
3. 생산량 10개를 수요곡선에 대입하면 $P = 100 - 2(10) = 80$이다.

따라서 이윤극대화 가격은 80원이고 생산량은 10개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40원, 30개에서는 $MR = 100 - 4(30) = -20$로 $MC = 60$보다 작으므로 생산량을 줄여야 한다. 틀린 값인 '40원, 30개'는 '80원, 10개'로 고쳐야 한다.
② X — 50원, 25개에서는 $MR = 0$으로 $MC = 60$보다 작다. 이는 $MR = 0$으로 총수입만 극대화한 결과이며, 틀린 값인 '50원, 25개'는 '80원, 10개'로 고쳐야 한다.
③ X — 60원, 20개에서는 가격과 한계비용이 같지만 $MR = 20$으로 $MC = 60$보다 작다. 독점기업은 $P = MC$가 아니라 $MR = MC$에서 생산량을 정하므로, 틀린 값인 '60원, 20개'는 '80원, 10개'로 고쳐야 한다.
④ X — 70원, 15개에서는 $MR = 40$으로 $MC = 60$보다 작으므로 생산량이 지나치게 많다. 틀린 값인 '70원, 15개'는 '80원, 10개'로 고쳐야 한다.
⑤ O — 80원, 10개에서는 $MR = 100 - 4(10) = 60 = MC$이고, 수요곡선에도 $80 = 100 - 2(10)$으로 부합하므로 이윤극대화 조합이다.

오답 포인트

②는 $MR = 0$으로 총수입을 극대화한 값이고, ③은 $P = MC$를 적용한 값이다.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에서는 수요곡선의 가격을 곧바로 한계비용과 같게 두지 않고, 총수입을 미분해 구한 한계수입을 한계비용과 같게 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형 수요곡선이 주어지면 먼저 $TR = P(Q)Q$를 만들고 이를 미분해 MR을 구한다. 다음으로 $MR = MC$에서 생산량을 구한 뒤, 그 생산량을 원래 수요곡선에 대입해 가격을 구한다.

암기 포인트

독점의 수량은 $MR = MC$, 가격은 수요곡선에서 결정된다.

NoteBase

문 111. 여러 형태의 시장 또는 기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독점기업이 직면한 수요곡선은 시장수요곡선 그 자체이다.

② 독점시장의 균형에서 가격과 한계수입의 차이가 클수록 독점도는 커진다.

③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제품의 차별화가 클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커진다.

④ 모든 기업의 이윤극대화 필요조건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것이다.

⑤ 독점기업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서로 다른 두 소비자 집단이 있을 때 가격 차별로 이윤극대화를 꾀할 수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독점·독점적 경쟁·가격차별에서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시장지배력, 이윤극대화 조건, 수요의 가격탄력성 사이의 관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독점시장은 한 기업이 시장 전체의 공급을 담당하므로 개별 독점기업의 수요곡선이 곧 시장수요곡선이다.
독점적 경쟁시장은 다수 기업이 차별화된 제품을 판매하는 시장이다. 제품 차별화가 커지면 가까운 대체재가 줄어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작아진다.
가격차별은 같은 재화를 소비자 집단별 수요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요가 덜 탄력적인 집단에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독점기업은 시장의 유일한 공급자이므로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시장수요곡선 자체이다.
② O. 이윤극대화 균형에서는 $MR = MC$이므로 $P - MR = P - MC$이다. 가격과 한계수입의 상대적 격차가 클수록 수요가 덜 탄력적이고 독점력이 크다.
③ X. 틀린 표현은 “제품의 차별화가 클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커진다”이다. 올바르게는 제품 차별화가 클수록 가까운 대체재가 줄어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작아진다.
④ O. 일반적인 내부해에서 이윤 $\pi(q) = TR(q) - TC(q)$를 극대화하는 필요조건은 $MR = MC$이다. 완전경쟁기업은 $P = MR$이므로 $P = MC$가 된다.
⑤ O. 소비자 집단별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다르고 집단 구분과 재판매 방지가 가능하면 제3급 가격차별을 통해 이윤을 늘릴 수 있다. 수요가 덜 탄력적인 집단에는 더 높은 가격을, 더 탄력적인 집단에는 더 낮은 가격을 부과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제품 차별화가 커지면 소비자가 가격에 더 민감해진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실제로 차별화가 커질수록 대체재가 줄어 해당 기업의 가격 인상에도 수요량이 덜 줄어들므로 수요는 덜 탄력적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품 차별화와 수요탄력성의 관계는 대체재의 수로 판단한다. 차별화 증가 → 가까운 대체재 감소 →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 감소 → 수요의 가격탄력성 감소의 순서로 연결된다.

암기 포인트

차별화가 클수록 대체재는 적고, 수요는 덜 탄력적이며, 기업의 시장지배력은 커진다.

NoteBase

문 112. 주어진 예산으로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어떤 사람이 일정 기간에 두 재화 X와 Y만 소비한다고 하자. X의 가격은 200원이고, 그가 얻는 한계효용이 600이 되는 수량까지 X를 소비한다. 아래 표는 Y의 가격이 300원일 때 그가 소비하는 Y의 수량과 한계효용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 효용이 극대화되는 Y의 소비량은?

Y의 수량	1개	2개	3개	4개	5개
한계효용	2,600	1,900	1,300	900	800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각 재화의 화폐 1원당 한계효용을 비교하여 소비자의 효용극대화 수량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X의 가격은 200원이고 한계효용은 600이므로 X의 1원당 한계효용은 3이다.
Y의 가격은 300원이며, Y를 1개부터 5개까지 소비할 때 한계효용은 각각 2,600, 1,900, 1,300, 900, 800이다.
구해야 할 값은 X와 Y의 1원당 한계효용이 같아지는 Y의 소비량이다.

사용할 공식

효용극대화 조건은 다음과 같다.
$\frac{MU_X}{P_X} = \frac{MU_Y}{P_Y}$
한정된 예산을 두 재화에 배분할 때 1원당 한계효용이 같아야 더 이상의 소비 조정으로 총효용을 높일 수 없으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X의 1원당 한계효용을 계산한다.
$\frac{MU_X}{P_X} = \frac{600}{200} = 3$
2. Y의 각 소비량에서 1원당 한계효용을 계산한다.
$\frac{2600}{300} = \frac{26}{3}$, $\frac{1900}{300} = \frac{19}{3}$, $\frac{1300}{300} = \frac{13}{3}$, $\frac{900}{300} = 3$, $\frac{800}{300} = \frac{8}{3}$
3. X와 같은 값 3이 되는 것은 Y의 수량이 4개일 때이다. 또한 다섯째 Y의 1원당 한계효용은 8/3으로 X의 3보다 작으므로 Y를 5개까지 늘리지 않는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Y가 1개일 때 1원당 한계효용은 26/3으로 3보다 크므로 아직 Y 소비를 늘려 효용을 높일 수 있다. 틀린 표현인 '1개'는 '4개'로 고쳐야 한다.
② X — Y가 2개일 때 1원당 한계효용은 19/3으로 3보다 크므로 효용극대화 수량에 이르지 않았다. 틀린 표현인 '2개'는 '4개'로 고쳐야 한다.
③ X — Y가 3개일 때 1원당 한계효용은 13/3으로 3보다 크므로 Y를 한 개 더 소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틀린 표현인 '3개'는 '4개'로 고쳐야 한다.
④ O — Y가 4개일 때 1원당 한계효용은 900/300 = 3으로 X의 600/200 = 3과 같아 효용극대화 조건을 충족한다.
⑤ X — 다섯째 Y의 1원당 한계효용은 800/300 = 8/3으로 X의 3보다 작으므로 Y를 5개까지 소비하면 효용극대화 조건에서 벗어난다. 틀린 표현인 '5개'는 '4개'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한계효용 자체가 같은 수량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한계효용을 가격으로 나눈 1원당 한계효용을 비교해야 한다. 특히 표의 900을 X의 한계효용 600과 직접 비교하면 안 되며, 각각 가격 300원과 200원으로 나누면 둘 다 3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두 재화의 효용극대화 문제에서는 각 재화의 한계효용을 가격으로 나눈 뒤 $MU_X/P_X = MU_Y/P_Y$가 되는 수량을 찾는다. 이산적인 수량에서는 다음 단위의 1원당 한계효용이 상대 재화보다 낮아지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효용극대화의 기준은 '한계효용의 일치'가 아니라 '1원당 한계효용의 일치'이다.

NoteBase

문 113. 시장균형에서 X재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단, 모든 재화는 정상재이다.)

① 인구의 증가

② 소득수준의 상승

③ X재 생산기술의 향상

④ X재의 대체재 가격 상승

⑤ X재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가격 상승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시장균형에서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는 균형가격을 상승시키고, 공급 증가는 균형가격을 하락시킨다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수요 증가는 각 가격에서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양이 늘어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이며, 공급이 일정하면 균형가격이 상승한다.
공급 증가는 각 가격에서 생산자가 판매하려는 양이 늘어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이며, 수요가 일정하면 균형가격이 하락한다.
반대로 공급 감소는 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켜 균형가격을 상승시킨다.

선지별 해설

① O — 인구가 증가하면 X재의 잠재적 소비자가 늘어 시장수요가 증가하므로 균형가격이 상승한다.
② O — 모든 재화가 정상재라는 조건에서 소득수준이 상승하면 X재 수요가 증가하므로 균형가격이 상승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X재 생산기술의 향상’이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부분이다. 생산기술이 향상되면 생산비가 낮아지고 공급이 증가하므로, 올바르게는 X재의 균형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이다.
④ O — X재의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X재로 이동하여 X재 수요가 증가하므로 균형가격이 상승한다.
⑤ O — X재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가격이 상승하면 생산비가 증가하여 X재 공급이 감소하므로 균형가격이 상승한다.

오답 포인트

③의 ‘생산기술 향상’을 상품의 품질 향상이나 수요 증가로 오해하기 쉽다. 생산기술 향상은 생산 측 요인이므로 공급을 증가시키고 균형가격을 낮춘다. 반면 ⑤의 원료가격 상승은 생산비를 높여 공급을 감소시키므로 균형가격을 높인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 요인이 수요와 공급 중 어느 곡선을 어느 방향으로 이동시키는지 판별한다. 수요의 오른쪽 이동과 공급의 왼쪽 이동은 가격 상승, 수요의 왼쪽 이동과 공급의 오른쪽 이동은 가격 하락으로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수요 증가·공급 감소는 가격 상승, 수요 감소·공급 증가는 가격 하락이다.

NoteBase

문 114. 최고가격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암시장을 출현시킬 가능성이 있다.
ㄴ. 초과수요를 야기한다.
ㄷ. 사회적 후생을 증대시킨다.
ㄹ. 최고가격은 시장의 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실효성 있는 최고가격제가 시장가격, 초과수요, 암시장 및 사회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재화의 거래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가격의 상한을 정하는 제도이다.
시장에 실제 영향을 주려면 최고가격을 시장균형가격보다 낮게 설정해야 한다. 이 경우 수요량은 늘고 공급량은 줄어 초과수요가 발생하며, 배급 문제·암시장·사중손실이 나타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ㄱ과 ㄴ은 모두 옳다.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은 최고가격에서는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아져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부족한 재화를 더 높은 가격에 거래하려는 암시장이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

② X
ㄱ은 옳지만 ㄷ의 '사회적 후생을 증대시킨다'가 틀리다. 실효성 있는 최고가격제는 상호 이익이 되는 거래 일부를 막아 사중손실을 발생시키므로, 일반적으로 총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킨다.

③ X
ㄱ은 옳지만 ㄹ의 '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이 틀리다. 시장에 영향을 주는 최고가격은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균형가격보다 높으면 시장균형가격에서 거래할 수 있어 가격 규제가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④ X
ㄴ은 옳지만 ㄷ의 '사회적 후생을 증대시킨다'가 틀리다. 초과수요와 거래량 감소로 사중손실이 생기므로, 올바르게는 총사회적 후생이 일반적으로 감소한다고 해야 한다.

⑤ X
ㄷ과 ㄹ이 모두 틀리다. 실효성 있는 최고가격제는 총사회적 후생을 일반적으로 감소시키며, 시장균형가격보다 낮게 설정되어야 한다.

오답 포인트

최고가격을 '가격보다 높은 한도'라고 생각하여 ㄹ을 고르기 쉽다. 그러나 규제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상한이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아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점만 보고 ㄷ을 옳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공급 감소와 거래 축소에서 생기는 사중손실까지 포함해 총사회적 후생을 판단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최고가격이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아 구속력이 있는지 판단한다. 구속력이 있으면 '가격 하락 → 수요량 증가·공급량 감소 → 초과수요 → 배급 문제와 암시장 가능성 → 사중손실'의 순서로 효과를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구속력 있는 최고가격은 균형가격 아래, 결과는 초과수요·암시장 가능성·사중손실이다.

NoteBase

문 115. 완전경쟁시장에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다음과 같을 때 시장균형에서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단, P는 가격, Q는 수량이다.)

◯ 수요곡선: $P = 7 - 0.5Q$
◯ 공급곡선: $P = 2 + 2Q$

① 0.75
② 1
③ 1.25
④ 1.5
⑤ 2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시장균형을 구한 뒤, 그 균형점에서 공급의 점가격탄력성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수요곡선은 $P = 7 - 0.5Q$, 공급곡선은 $P = 2 + 2Q$이다.
구해야 할 값은 시장균형점에서 공급량이 가격 변화에 반응하는 정도인 공급의 가격탄력성이다.
공급곡선의 기울기 dP/dQ가 아니라 dQ/dP를 탄력성 공식에 넣어야 한다.

사용할 공식

시장균형에서는 수요가격과 공급가격이 같으므로
$7 - 0.5Q = 2 + 2Q$
를 사용한다.
공급의 점가격탄력성은
$E_S = \frac{dQ_S}{dP} \times \frac{P}{Q_S}$
이다.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율이므로 공급함수를 Q_S에 관해 정리한 뒤 dQ_S/dP를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시장균형 수량을 구하면 $7 - 0.5Q = 2 + 2Q$이므로 $5 = 2.5Q$, 따라서 $Q^* = 2$이다.
2. 균형가격은 공급곡선에 대입하여 $P^* = 2 + 2 \times 2 = 6$이다.
3. 공급곡선을 수량에 관해 정리하면 $Q_S = (P - 2)/2 = 0.5P - 1$이므로 $dQ_S/dP = 0.5$이다.
4. 균형점에서 $E_S = 0.5 \times (6/2) = 1.5$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0.75는 계산된 탄력성 1.5와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값 0.75는 올바르게는 1.5이다.
② X — 1은 계산된 탄력성 1.5와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값 1은 올바르게는 1.5이다.
③ X — 1.25는 계산된 탄력성 1.5와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값 1.25는 올바르게는 1.5이다.
④ O — $dQ_s/dP = 0.5$, $P^* = 6$, $Q^* = 2$를 공식에 대입하면 $E_s = 1.5$이다.
⑤ X — 2는 계산된 탄력성 1.5와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값 2는 올바르게는 1.5이다.

오답 포인트

공급곡선이 역공급함수 $P = 2 + 2Q$로 주어졌다는 점이 함정이다. 식의 기울기 2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공급함수 $Q_s = 0.5P - 1$로 바꾸어 $dQ_s/dP = 0.5$를 구해야 한다. 또한 탄력성은 기울기만이 아니라 균형점의 비율 P/Q까지 곱한 값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수요식과 공급식을 같게 놓아 (P^*, Q^*)를 구하고, 공급식을 $Q_s = f(P)$ 꼴로 바꾼 뒤 $E_s = (dQ_s/dP)(P^*/Q^*)$를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점탄력성은 '기울기 dQ/dP × 점의 비율 P/Q'이다.

NoteBase

문 116. 과점시장의 굴절수요곡선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계수입곡선에는 불연속한 부분이 있다.

② 굴절수요곡선은 원점에 대해 볼록한 모양을 갖는다.

③ 한 기업이 가격을 내리면 나머지 기업들도 같이 내리려 한다.

④ 한 기업이 가격을 올리더라도 나머지 기업들은 따라서 올리려 하지 않는다.

⑤ 기업은 한계비용이 일정 범위 내에서 변해도 가격과 수량을 쉽게 바꾸려 하지 않는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굴절수요곡선 이론에서 경쟁 기업이 가격 인상과 인하에 비대칭적으로 반응할 때 수요곡선과 한계수입곡선이 어떤 형태를 띠며, 가격이 왜 경직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굴절수요곡선 이론은 한 과점기업이 가격을 올리면 경쟁 기업은 따라 올리지 않고, 가격을 내리면 경쟁 기업은 따라 내린다고 가정하여 현재 가격에서 수요곡선이 굴절되고 가격이 경직된다고 설명하는 이론이다.
현재 가격보다 높은 구간의 수요는 탄력적이고, 낮은 구간의 수요는 비탄력적이다. 따라서 수요곡선은 굴절점에서 원점에 대해 오목하게 꺾이며, 이에 대응하는 한계수입곡선에는 수직의 불연속 구간이 생긴다.

선지별 해설

① O — 굴절점에서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갑자기 달라지므로 한계수입곡선에는 수직으로 끊어진 불연속 구간이 생긴다.
② X — 틀린 표현은 '원점에 대해 볼록한 모양'이다. 굴절수요곡선은 높은 가격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완만하고 낮은 가격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가파르므로, 올바르게는 원점에 대해 오목한 모양을 갖는다고 해야 한다.
③ O — 한 기업이 가격을 내리면 시장점유율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나머지 기업들도 가격을 따라 내린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가격 인하 구간의 개별기업 수요는 비탄력적이다.
④ O — 한 기업이 가격을 올려도 나머지 기업들은 가격을 유지한다고 가정한다. 가격을 올린 기업은 고객을 많이 잃으므로 가격 인상 구간의 개별기업 수요는 탄력적이다.
⑤ O — 한계비용곡선이 한계수입곡선의 불연속 구간 안에서 이동하는 동안에는 이윤극대화 산출량과 가격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이것이 과점가격의 경직성을 설명한다.

오답 포인트

②의 '원점에 대해 볼록'이라는 표현이 함정이다. 높은 가격 구간이 완만하고 낮은 가격 구간이 가파르다는 두 구간의 기울기를 실제로 이어 보면 굴절수요곡선은 원점에 대해 오목하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가격 인상은 경쟁자가 추종하지 않으므로 수요가 탄력적이고 수요곡선이 완만하다. 가격 인하는 경쟁자가 추종하므로 수요가 비탄력적이고 수요곡선이 가파르다. 이 두 구간을 연결하여 원점에 대해 오목한 굴절, 한계수입의 불연속, 한계비용 변화에도 유지되는 가격과 수량을 차례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가격 인상은 미추종·탄력적·완만, 가격 인하는 추종·비탄력적·가파름, 그 결과 수요곡선은 오목하게 굴절되고 한계수입은 불연속이다.

NoteBase

문 117.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이면서 공급곡선은 우상향하고 있는 재화에 대해 조세가 부과될 경우, 조세부담의 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세부담은 모두 소비자에게 귀착된다.

② 조세부담은 모두 판매자에게 귀착된다.

③ 조세부담은 양측에 귀착되지만 소비자에게 더 귀착된다.

④ 조세부담은 양측에 귀착되지만 판매자에게 더 귀착된다.

⑤ 조세부담은 소비자와 판매자에게 똑같이 귀착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수요가 완전비탄력적일 때 조세부담이 소비자와 판매자 중 누구에게 귀착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이라는 것은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이 전혀 변하지 않는 완전비탄력적 수요를 뜻한다. 이 경우 수요곡선은 수직이며, 조세가 부과되어도 거래량은 줄지 않고 소비자가 내는 가격만 세액만큼 상승한다. 따라서 판매자가 받는 세후 순가격은 변하지 않고 조세부담은 전부 소비자에게 귀착된다.
조세의 법률상 납부자가 누구인지는 경제적 조세부담의 귀착을 결정하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가격탄력성이 작은 쪽이 더 많은 조세부담을 지며, 한쪽의 탄력성이 0이면 그쪽이 전부 부담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이면 소비자가 가격 상승에도 수요량을 줄이지 않으므로 조세 전액이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에 반영된다. 따라서 조세부담은 모두 소비자에게 귀착된다.
② X — 틀린 표현은 '모두 판매자에게'이다. 판매자가 전부 부담하는 경우는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인 경우이다. 이 문항에서는 수요가 완전비탄력적이므로 올바르게는 '조세부담은 모두 소비자에게 귀착된다'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양측에 귀착되지만 소비자에게 더'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단지 공급보다 작다면 소비자 부담이 더 클 수 있지만, 탄력성이 0이면 소비자가 일부가 아니라 전부 부담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양측에 귀착되지만 판매자에게 더'이다. 완전비탄력적인 쪽은 소비자이므로 판매자에게 더 귀착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소비자에게 조세부담이 전부 귀착된다.
⑤ X — 틀린 표현은 '똑같이 귀착된다'이다. 동일한 부담은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이 같은 경우에 가능하다. 이 문항에서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이므로 소비자가 전부 부담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공급곡선이 우상향한다’는 표현만 보고 판매자도 일부 부담한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수요가 완전비탄력적이면 가격이 올라도 거래량이 줄지 않으므로 판매자는 세액 전부를 소비자가격에 전가할 수 있다. 핵심은 곡선의 일반적인 모양이 아니라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정확히 0이라는 조건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수요와 공급 중 어느 쪽이 가격 변화에 덜 반응하는지 확인한다. 덜 탄력적인 쪽이 조세를 더 부담하며, 수요가 완전비탄력적이면 소비자가 전부 부담하고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면 판매자가 전부 부담한다.

암기 포인트

조세는 덜 탄력적인 쪽이 더 부담한다. 수요 탄력성 0이면 소비자 100%, 공급 탄력성 0이면 판매자 100%이다.

NoteBase

문 118. 여러 가지 비용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평균비용곡선은 평균가변비용곡선의 위에 위치한다.
ㄴ. 평균비용곡선이 상승할 때 한계비용곡선은 평균비용곡선 아래에 있다.
ㄷ. 평균고정비용곡선은 우하향한다.
ㄹ. 총가변비용곡선의 기울기와 총비용곡선의 기울기는 다르다.
ㅁ. 평균비용은 평균고정비용에 평균가변비용을 더한 값이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평균비용·평균가변비용·평균고정비용의 관계와 총비용곡선의 기울기를 한계비용으로 연결하여 옳은 진술을 판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평균비용은 생산량 한 단위당 총비용이며, 평균고정비용과 평균가변비용의 합이다: $AC = AFC + AVC$.
평균고정비용은 고정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값이다: $AFC = FC/Q$. 생산량이 늘면 동일한 고정비용이 더 많은 생산량에 분산되므로 감소한다.
총비용은 총고정비용과 총가변비용의 합이다: $TC = TFC + TVC$. 총고정비용은 생산량과 무관한 상수이므로 총비용곡선과 총가변비용곡선의 기울기는 모두 한계비용 MC로 같다.
평균비용이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크고,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작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과 ㄷ은 옳지만 ㄴ이 틀렸다. 평균비용이 상승할 때 한계비용곡선은 평균비용곡선 아래가 아니라 위에 있다. 따라서 ㄴ을 ㅁ으로 바꾸어 'ㄱ, ㄷ, ㅁ'으로 고쳐야 한다.

② O
ㄱ은 $AC = AFC + AVC$이고 $AFC > 0$이므로 평균비용곡선이 평균가변비용곡선 위에 있어 옳다. ㄷ은 $AFC = FC/Q$이므로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평균고정비용이 감소하여 옳다. ㅁ은 평균비용의 정의가 평균고정비용과 평균가변비용의 합이므로 옳다.

③ X
ㄱ과 ㅁ은 옳지만 ㄹ이 틀렸다. $TC = TFC + TVC$에서 총고정비용은 상수이므로 총가변비용곡선과 총비용곡선의 기울기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 한계비용으로 같다. 따라서 ㄹ을 ㄷ으로 바꾸어 'ㄱ, ㄷ, ㅁ'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ㄷ은 옳지만 ㄴ과 ㄹ이 틀렸다. 평균비용이 상승할 때는 $MC > AC$이고, 총가변비용곡선과 총비용곡선의 기울기는 같다. 옳은 진술의 조합은 'ㄱ, ㄷ, ㅁ'이다.

⑤ X
ㅁ은 옳지만 ㄴ과 ㄹ이 틀렸다. ㄴ은 '평균비용이 상승할 때 한계비용곡선은 평균비용곡선 위에 있다'로, ㄹ은 '총가변비용곡선의 기울기와 총비용곡선의 기울기는 같다'로 고쳐야 한다. 옳은 진술의 조합은 'ㄱ, ㄷ, ㅁ'이다.

오답 포인트

평균값이 상승할 때 한계값이 평균값을 위에서 끌어올린다는 관계를 반대로 판단하기 쉽다. 또한 총비용이 총가변비용보다 총고정비용만큼 크다는 사실을 두 곡선의 기울기도 다르다는 뜻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두 곡선은 수직 간격만 일정하고 기울기는 같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AC = AFC + AVC$, $AFC = FC/Q$, $TC = TFC + TVC$를 적용한다. 이어서 평균비용이 상승하면 $MC > AC$, 하락하면 $MC < AC$라는 평균과 한계의 관계를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AC = AFC + AVC$, 고정비용은 곡선의 높이 차이만 만들고 기울기 차이는 만들지 않는다.

NoteBase

문 119. 기업 A가 생산하는 재화에 투입하는 노동의 양을 L이라 하면, 노동의 한계생산은 $27 - 5L$이다. 이 재화의 가격이 20이고 임금이 40이라면, 이윤을 극대로 하는 기업 A의 노동수요량은?

① 1
② 2
③ 3
④ 4
⑤ 5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완전경쟁시장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노동수요량은 노동의 한계수입생산과 임금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조건 정리

노동의 한계생산: $MPL = 27 - 5L$
재화의 가격: $P = 20$
임금: $w = 40$
구해야 할 값: 이윤을 극대화하는 노동투입량 L

사용할 공식

$MRPL = P \times MPL = w$
기업이 노동을 한 단위 더 투입할 때 얻는 추가 수입인 노동의 한계수입생산 $MRPL$과 추가 비용인 임금 w가 같을 때 이윤이 극대화된다. 한계생산이 노동투입에 따라 감소하므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지점이 이윤극대점이다.

계산 과정

1. 노동의 한계수입생산을 구한다.
$MRPL = 20(27 - 5L)$
2. 노동의 한계수입생산과 임금을 같게 놓는다.
$20(27 - 5L) = 40$
3. 식을 정리한다.
$27 - 5L = 2$
$5L = 25$
$L = 5$
따라서 기업 A의 노동수요량은 5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노동수요량이 1이라는 값은 이윤극대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틀린 값 1 → 올바른 노동수요량은 5이다.
② X — 노동수요량이 2라는 값은 $20(27-5L)=40$을 만족하지 않는다. 틀린 값 2 → 올바른 노동수요량은 5이다.
③ X — 노동수요량이 3이라는 값은 한계수입생산과 임금이 같아지는 투입량이 아니다. 틀린 값 3 → 올바른 노동수요량은 5이다.
④ X — 노동수요량이 4일 때 $MRPL=20(27-20)=140$으로 임금 40보다 크므로 노동을 더 투입하면 이윤이 증가한다. 틀린 값 4 → 올바른 노동수요량은 5이다.
⑤ O — 노동수요량이 5일 때 $MRPL=20(27-25)=40$으로 임금과 정확히 같다.

오답 포인트

한계생산 MPL 자체를 임금과 비교하면 안 된다. 재화 가격을 곱한 노동의 한계수입생산 $P\times MPL$을 임금과 비교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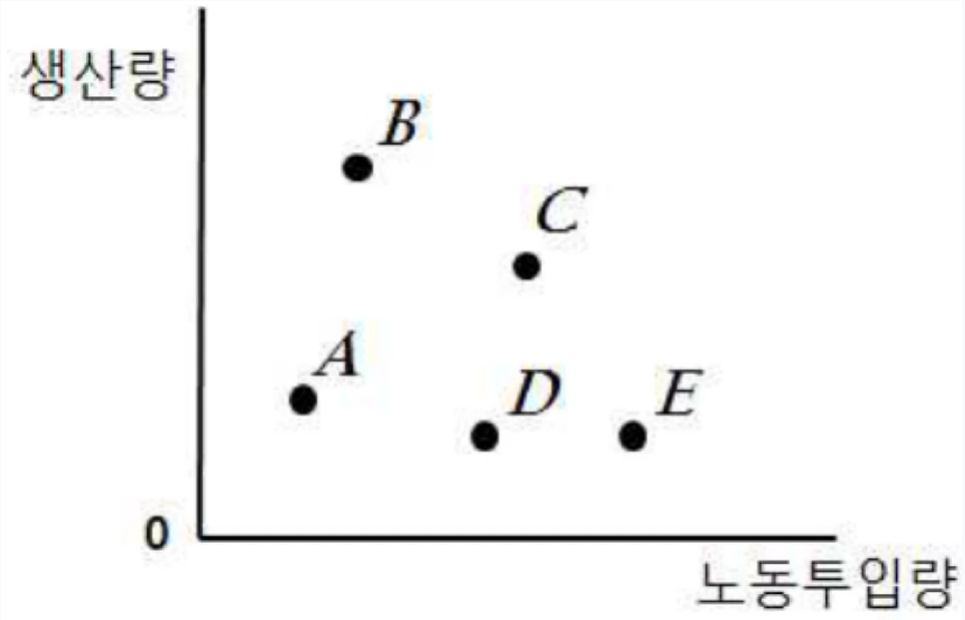
재화시장과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인 노동수요 문제에서는 먼저 $P\times MPL=w$를 세우고, 주어진 한계생산함수를 대입하여 노동투입량을 구한다.

암기 포인트

노동 한 단위의 추가 수입은 $P\times MPL$, 추가 비용은 임금 w이므로 이윤극대조건은 $P\times MPL=w$이다.

NoteBase

문 120.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부품 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동일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5개 기업의 노동투입량과 자동차 부품 생산량 간의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평균노동생산성이 가장 낮은 기업은?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평균노동생산성의 공식을 산점도의 기울기로 바꾸어 비교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세로축은 생산량, 가로축은 노동투입량이다.
구해야 할 값은 각 기업의 노동투입량 1단위당 생산량이다.
각 점의 세로좌표나 가로좌표만 따로 비교하지 않고 두 좌표의 비율을 비교해야 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평균노동생산성=생산량노동투입량
산점도에서 이 비율은 원점과 각 기업의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와 같다. 따라서 원점에서 그은 직선이 가장 완만한 기업의 평균노동생산성이 가장 낮다.

계산 과정

1. 원점과 A, B, C, D, E의 각 점을 잇는 직선을 생각한다.
2. 각 직선의 기울기인 생산량/노동투입량을 비교한다.
3. E는 생산량이 낮은 편이면서 노동투입량은 가장 많아 원점과 E를 이은 직선의 기울기가 가장 작다. 따라서 평균노동생산성이 가장 낮은 기업은 E이다.

선지 판단

① X — A를 원점과 이은 직선은 E를 원점과 이은 직선보다 가파르므로 A의 평균노동생산성이 E보다 높다. '가장 낮은 기업은 A'가 틀렸고, 올바르게는 가장 낮은 기업은 E이다.
② X — B는 적은 노동투입량으로 많은 생산량을 나타내어 원점에서 이은 직선의 기울기가 크다. '가장 낮은 기업은 B'가 틀렸고, 올바르게는 가장 낮은 기업은 E이다.
③ X — C를 원점과 이은 직선도 E를 원점과 이은 직선보다 가파르므로 C의 평균노동생산성이 E보다 높다. '가장 낮은 기업은 C'가 틀렸고, 올바르게는 가장 낮은 기업은 E이다.
④ X — D와 E는 생산량이 비슷하지만 E의 노동투입량이 더 많으므로 E의 생산량/노동투입량이 더 작다. '가장 낮은 기업은 D'가 틀렸고, 올바르게는 가장 낮은 기업은 E이다.
⑤ O — E는 원점과 이은 직선의 기울기가 다섯 기업 중 가장 작으므로 평균노동생산성이 가장 낮다.

오답 포인트

생산량이 가장 적어 보이는 점만 고르면 D와 E를 혼동하기 쉽다. 평균노동생산성은 생산량 자체가 아니라 생산량을 노동투입량으로 나눈 비율이므로, 원점에서 각 점까지의 기울기를 비교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세로축이 산출량이고 가로축이 투입량인 산점도에서는 원점과 각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를 비교한다. 가장 가파른 점은 평균생산성이 가장 높고, 가장 완만한 점은 평균생산성이 가장 낮다.

암기 포인트

평균생산성은 산출량/투입량이며, 산점도에서는 원점에서 그은 직선의 기울기이다.

NoteBase

문 121. 어떤 산업에서 임금이 상승할 경우, 노동공급은 증가하고 노동수요는 감소하는 상태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 산업에서 생산물 가격이 하락할 때, 새로운 균형 달성을 위한 임금수준과 고용량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생산물시장과 생산요소시장은 완전경쟁이고, 기업들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한다.)

① 임금 상승, 고용량 감소

② 임금 상승, 고용량 증가

③ 임금 하락, 고용량 감소

④ 임금 하락, 고용량 증가

⑤ 임금 및 고용량 변화 없음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생산물가격 하락이 기업의 노동수요를 감소시킬 때 경쟁적 노동시장의 균형임금과 균형고용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완전경쟁기업의 노동수요는 노동의 한계생산가치 $VMP_L = P \times MP_L$에 의해 결정된다. 생산물가격 P가 하락하면 각 고용량에서 노동의 한계생산가치가 낮아져 노동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우상향하는 노동공급곡선이 그대로라면 새로운 균형에서는 임금과 고용량이 모두 감소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임금 상승'이 틀린 표현이다. 노동수요가 감소하므로 임금은 상승하지 않고 하락하며, 올바른 변화는 '임금 하락, 고용량 감소'이다.

② X — '임금 상승, 고용량 증가'가 모두 틀린 표현이다. 노동수요곡선의 좌측 이동으로 임금과 고용량이 모두 감소한다.

③ O — 생산물가격 하락은 노동의 한계생산가치를 낮춰 노동수요를 감소시키므로 새로운 균형에서 임금과 고용량이 모두 감소한다.

④ X — '고용량 증가'가 틀린 표현이다. 임금은 하락하지만 노동수요 감소로 균형고용량도 감소하므로 올바른 표현은 '임금 하락, 고용량 감소'이다.

⑤ X — '변화 없음'이 틀린 표현이다. 생산물가격 하락으로 노동수요가 감소하므로 균형임금과 균형고용량이 모두 감소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생산물가격 하락을 노동공급의 변화로 보거나, 낮아진 임금 때문에 기업이 노동을 더 고용한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노동의 한계생산가치 하락에 따른 노동수요곡선 자체의 좌측 이동이며, 그 결과 균형임금과 균형고용량이 함께 감소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생산물가격이 변하면 먼저 $VMP_L = P \times MP_L$의 변화를 확인한다. 생산물가격 하락은 노동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우상향 노동공급 아래에서는 균형임금과 균형고용량을 모두 낮춘다.

암기 포인트

생산물가격 하락 → 노동의 한계생산가치 하락 → 노동수요 감소 → 임금·고용량 모두 감소이다.

NoteBase

문 122.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여가가 정상재인 상황에서 임금이 상승할 경우 (ㄱ)효과보다 (ㄴ)효과가 더 크다면 노동공급은 임금상승에도 불구하고 감소하게 된다. 만약 (ㄷ)의 기회비용 상승에 반응하여 (ㄷ)의 총사용량을 줄인다면, 노동공급곡선은 정(+)의 기울기를 가지게 된다.

① ㄱ: 대체, ㄴ: 소득, ㄷ: 여가

② ㄱ: 대체, ㄴ: 소득, ㄷ: 노동

③ ㄱ: 소득, ㄴ: 대체, ㄷ: 여가

④ ㄱ: 소득, ㄴ: 대체, ㄷ: 노동

⑤ ㄱ: 가격, ㄴ: 소득, ㄷ: 여가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임금 상승이 여가의 기회비용과 실질소득을 동시에 높일 때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노동공급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대체효과: 임금이 상승하면 여가 한 시간의 기회비용이 커지므로 여가를 줄이고 노동을 늘리는 효과이다.
키워드는 '여가 감소·노동 증가'이다.
소득효과: 임금 상승으로 실질소득이 늘면 정상재인 여가의 수요가 증가하므로 노동을 줄이는 효과이다.
키워드는 '여가 증가·노동 감소'이다.
따라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면 임금이 상승해도 노동공급이 감소하고, 대체효과가 더 크면 노동공급곡선은 정(+)의 기울기를 가진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임금 상승의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면 노동공급이 감소한다. 또한 여가의 기회비용 상승에 반응하여 여가 사용량을 줄이면 노동공급이 증가하므로 ㄱ은 대체, ㄴ은 소득, ㄷ은 여가이다.
② X — 틀린 표현은 'ㄷ: 노동'이다. 임금은 노동의 대가인 동시에 여가 한 시간의 기회비용이므로, 기회비용 상승으로 사용량을 줄이는 대상은 노동이 아니라 여가이다. 올바르게는 'ㄷ: 여가'이다.
③ X — 'ㄱ: 소득, ㄴ: 대체'가 서로 뒤바뀌었다.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소득효과이고, 이를 압도당하는 효과는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대체효과이다. 올바르게는 'ㄱ: 대체, ㄴ: 소득'이다.
④ X — ㄱ·ㄴ뿐 아니라 ㄷ도 잘못되었다. 올바른 대응은 'ㄱ: 대체, ㄴ: 소득, ㄷ: 여가'이다. 임금 상승의 대체효과는 노동을 늘리고 소득효과는 노동을 줄이며, 기회비용이 상승하는 대상은 여가이다.
⑤ X — 틀린 표현은 'ㄱ: 가격'이다. 임금 상승으로 여가가 상대적으로 비싸져 노동이 늘어나는 것은 가격효과 전체가 아니라 대체효과이다. 올바르게는 'ㄱ: 대체'이다.

오답 포인트

임금 상승이 무조건 노동공급을 늘린다고 생각하면 소득효과를 놓치게 된다. 특히 여가가 정상재이므로 소득효과는 여가를 늘리고 노동을 줄이는 반면, 대체효과는 여가를 줄이고 노동을 늘린다는 반대 방향을 구별해야 한다. 또한 임금은 여가의 기회비용이라는 점이 ㄷ을 결정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임금 상승 문제에서는 먼저 '여가가 비싸진다'는 대체효과와 '소득이 늘어난다'는 소득효과를 나눈다. 대체효과는 여가 감소·노동 증가, 소득효과는 정상재인 여가 증가·노동 감소로 판단한 뒤 어느 효과가 더 큰지에 따라 노동공급곡선의 기울기를 결정한다.

암기 포인트

임금 상승: 대체효과는 노동 증가, 소득효과는 노동 감소이다. 소득효과가 더 크면 후방굴절, 대체효과가 더 크면 우상향이다.

NoteBase

문 123. 노동시장과 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실망노동자(discouraged worker)는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② 완전고용은 자발적 실업이 없는 상태이다.

③ 최저임금제도의 도입은 실업 발생과 무관하다.

④ 실업보험이 확대되면 자연실업률이 낮아진다.

⑤ 비자발적 실업은 경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 그리고 마찰적 실업을 말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실망노동자의 분류, 완전고용의 의미, 최저임금과 실업, 실업보험과 자연실업률, 비자발적 실업의 범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실업자는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고 구직활동을 하지만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다.
실망노동자는 취업을 원하지만 구직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구직활동을 중단한 사람으로,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다.
완전고용은 실업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경기적 실업이 없고 마찰적·구조적 실업과 같은 자연실업만 존재하는 상태이다.
자연실업률은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 등 경기순환과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실업을 반영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실망노동자는 조사 기간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실업자가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② X. 틀린 표현은 '자발적 실업이 없는 상태'이다. 완전고용은 실업이 전혀 없거나 자발적 실업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경기적 실업이 없는 상태이며, 자연실업은 존재할 수 있다.
③ X. 틀린 표현은 '실업 발생과 무관하다'이다.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의 균형임금보다 높게 설정되면 노동공급은 늘고 노동수요는 줄어 초과 노동공급, 즉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
④ X. 틀린 표현은 '자연실업률이 낮아진다'이다. 실업보험이 확대되면 실직자의 구직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 마찰적 실업과 자연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다.
⑤ X. 틀린 표현은 비자발적 실업에 경기적·구조적·마찰적 실업을 모두 포함한 부분이다. 비자발적 실업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총수요 부족 등으로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경기적 실업을 주로 말하며,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은 자연실업률을 구성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실망노동자는 취업을 원한다는 점 때문에 실업자로 오인하기 쉽지만, 통계상 분류 기준은 조사 기간의 구직활동 여부이다. 또한 완전고용을 실업률 0%로 해석하거나 실업보험이 구직자를 보호하므로 자연실업률도 낮춘다고 생각하면 ②와 ④를 잘못 판단하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구직활동 여부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구분한다. 이어 완전고용에서는 경기적 실업만 사라지고 자연실업은 남는다는 기준을 적용한다. 노동시장 제도는 균형임금보다 높은 임금 하한이 초과 노동공급을 만드는지, 실업보험이 구직 기간을 늘리는지를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실망노동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완전고용은 경기적 실업이 없는 상태, 자연실업은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이다.

NoteBase

문 124. 생산가능인구가 1,000만 명인 어떤 나라가 있다고 하자. 이 가운데 취업자가 570만 명이고 실업자가 30만 명인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업률은 5%이다.

② 비경제활동률은 40%이다.

③ 경제활동인구는 600만 명이다.

④ 고용률은 60%이다.

⑤ 이 나라의 전체 인구는 알 수 없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의 관계를 이용하여 실업률·비경제활동률·고용률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생산가능인구 1,000만 명, 취업자 570만 명, 실업자 30만 명이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이므로 600만 명이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생산가능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를 뺀 400만 명이다.
주의할 조건: 실업률의 분모는 경제활동인구이고, 고용률과 비경제활동률의 분모는 생산가능인구이다.

사용할 공식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 100
비경제활동률=비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 100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 100
각 비율은 해당 상태의 인원이 기준 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경제활동인구는 570만 명+30만 명=600만 명이다.
2. 비경제활동인구는 1,000만 명-600만 명=400만 명이다.
3. 실업률은 $\frac{30}{600} \times 100 = 5\%$이다.
4. 비경제활동률은 $\frac{400}{1,000} \times 100 = 40\%$이다.
5. 고용률은 $\frac{570}{1,000} \times 100 = 57\%$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O — 실업률은 실업자 30만 명을 경제활동인구 600만 명으로 나눈 5%이다.
② O — 비경제활동인구는 400만 명이므로 비경제활동률은 생산가능인구 1,000만 명의 40%이다.
③ O —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 570만 명과 실업자 30만 명의 합인 600만 명이다.
④ X — 고용률은 취업자 570만 명을 생산가능인구 1,000만 명으로 나눈 57%이다. 틀린 표현인 '고용률은 60%이다'는 '고용률은 57%이다'로 고쳐야 한다. 60%는 경제활동인구 600만 명이 생산가능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경제활동참가율이다.
⑤ O — 생산가능인구는 전체 인구 가운데 일정 연령 범위에 해당하는 인구이므로, 생산가능인구 1,000만 명만으로 그 범위 밖의 인구까지 포함한 전체 인구는 알 수 없다.
옳지 않은 설명은 ④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오답 포인트

④의 60%는 경제활동인구 600만 명을 생산가능인구 1,000만 명으로 나눈 경제활동참가율이다. 고용률을 구할 때 경제활동인구를 분자로 넣는 것이 아니라 취업자 570만 명을 분자로 넣어야 한다. 또한 실업률만 분모가 경제활동인구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취업자와 실업자를 더해 경제활동인구를 구한 뒤, 지표별 분모를 확인한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를 분모로 하고,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비경제활동률은 생산가능인구를 분모로 한다.

암기 포인트

실업률은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고용률은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활동인구 ÷ 생산가능인구'이다.

NoteBase

문 125. 생산물시장과 생산요소시장이 완전경쟁일 때, 시장의 균형 임금률은 시간당 2만원이다. 어떤 기업이 시간당 노동 1단위를 추가로 생산에 투입할 때 산출물은 추가로 5단위 증가한다고 하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이 기업의 한계비용은?

① 2,000 원

② 4,000 원

③ 10,000 원

④ 20,000 원

⑤ 100,000 원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완전경쟁 생산요소시장에서 노동 1단위를 더 고용할 때 늘어나는 비용을 그 노동이 추가로 생산하는 산출량으로 나누어 한계비용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시간당 임금률은 20,000원이고 노동의 한계생산은 시간당 산출물 5단위이다.
구해야 할 값: 산출물 1단위를 추가로 생산하는 데 드는 한계비용이다.
주의할 조건: 20,000원은 노동 1단위의 추가 비용이며, 이를 산출물 1단위의 비용으로 바꾸어야 한다.

사용할 공식

$MC = \frac{w}{MPL}$
여기서 w는 임금률, MPL은 노동의 한계생산이다. 노동 1단위를 추가하면 비용이 w만큼 늘고 산출량이 MPL만큼 늘어나므로, 산출물 1단위당 추가 비용은 두 값의 비율이 된다.

계산 과정

1. 노동 1단위를 추가로 투입할 때 비용은 20,000원 증가한다.
2. 같은 투입으로 산출량은 5단위 증가한다.
3. $MC = \frac{20{,}000}{5} = 4{,}000$ 따라서 한계비용은 4,000원이다.

완전경쟁 생산물시장에서 이윤극대화 기업은 가격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수준을 선택하며, $P \times MPL = w$에서도 가격과 한계비용이 4,000원으로 같다는 결과를 얻는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2,000원은 계산 결과 4,000원과 다르다. 틀린 값 2,000원 → 올바른 한계비용은 20,000원을 5로 나눈 4,000원이다.
② O — 노동 1단위의 추가 비용 20,000원을 추가 산출량 5단위로 나누면 산출물 1단위당 한계비용은 4,000원이다.
③ X — 10,000원은 계산 결과와 다르다. 틀린 값 10,000원 → 올바른 한계비용은 20,000원을 5로 나눈 4,000원이다.
④ X — 20,000원은 노동 1단위의 임금이지 산출물 1단위의 한계비용이 아니다. 틀린 값 20,000원 → 올바르게는 임금을 노동의 한계생산으로 나눈 4,000원이다.
⑤ X — 100,000원은 임금과 한계생산을 곱한 값으로, 산출물 1단위당 추가 비용이 아니다. 틀린 값 100,000원 → 올바르게는 20,000원을 5로 나눈 4,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핵심 함정은 임금 20,000원을 그대로 한계비용으로 보거나, 임금과 노동의 한계생산을 곱하는 것이다. 임금은 노동 1단위당 비용이고 한계비용은 산출물 1단위당 비용이므로, 임금을 추가 산출량으로 나누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임금과 노동의 한계생산이 주어지면 노동 1단위의 추가 비용과 추가 산출량을 먼저 구분한 뒤 $MC = w/MPL$을 적용한다. 완전경쟁 조건에서는 $P \times MPL = w$와 $P = MC$를 연결해 검산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임금은 투입 1단위당 비용, 한계비용은 산출물 1단위당 비용이며 공식은 $MC = \frac{w}{MPL}$이다.

NoteBase